

# 창간사



21세기는 지식경보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산업화시대의 견제와 공존해왔던 20세기의 경보화라는 패러다임이 과도기로서 산업화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입장선상에 있었다면, 21세기의 지식경보화시대에는 사회 각 부문을 선도해 나가는 국가경쟁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정보센터는 그 동안 과학기술정보유통이라는 직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제반 활동을 '99년 슈퍼컴퓨터 센터를 통합하여 명실공히 DB(Data Base:과학기술정보유통)-DP(Data Processing:슈퍼컴퓨팅)-DC(Data Communication:

연구전산망)라는 지식경보 인프라간 연계를 통한 중론사태의 경을 열어 가고자 합니다. 이는 분리 분석의 시대에서 통합 융합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을 의미하며, 이러한 제반 지식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는 연구개발정보센터의 새로운 출발이기도 합니다.

연구개발정보센터는 설립 초창기에서부터 이러한 경보패러다임 변화를 실천해 나가느라, 그 동안 정말 경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더욱이 작년에 국무총리실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독립법인으로 재탄생하면서, 그 동안의 성과를 범 부처적으로 확산시키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서포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겠다는 바람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창간되는 기관지 『지식경보인프라』는 앞으로의 국가과학기술지식경보인프라의 모습과 청사진을 우리나라 산학연 및 공공부문, 또한 지식경보인프라에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적 기관지 차원에서 벗어나 경보화와 세계화의 시대에 맞는 국가과학기술지식경보인프라의 방향과 패러다임들을 경리하여 제공하는 값진 글들을 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향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식경보인프라 전문지로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며, 작은 결속이지만 국가과학기술지식경보인프라의 장기발전전략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함께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지금은 선구자들에게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즉 우리의 작업은 우물에서 물을 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찾기 위해 땅 속 깊이 구멍을 뚫는 행위와 같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지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존의 이론이나 생각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폭넓은 저변과 혜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여러분의 참여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비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4월

연구개발정보센터 소장 조영환